

들다방신문



오늘도 고맙습니다

제2호

혼지니 기자가간다!! 돌격인터뷰☆=

들다방은 뭐예요?
아무나 들어가고돼요?
학교예요?



뭐라도
말하세요,네?
언론 말하게
하는 폭력 행사중...

충격!! 뉴스!! 커피 100원이에요?

들다방에서 근무하는 최강자 씨 (성북구 35)는
오늘도 졸근하다 놀랐다. "선생님 커피 100원이죠?"
메일 커피 100원인지 확인하는 학생이 있따때문이다.
인전영화제 때도 그랬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이 마른데 커피 공짜 아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렇다. 아쉽게도 커피는 공짜도 100원도아니
그렇지만 최강자씨는 이렇게 답한다.
"잘 못이 아니예요. 아쉽게도 우리사회가
자본주의라 커피가 공짜가 아닌데
사회 혁명 일어나면 목이 마르면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사회가 될지도 모르죠.
2. 누구의 잘못도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커피가
공짜인 사회는
아니다!!!
혼지니 기자
오늘의 운세☆=

혼지니: 들다방이 대체 뭐예요? 밥도 있고, 싸고, 활동지원사 교육도 하는 것 같고.
학교 같기도 하고... 사장님 돈벌 생각 있나 걱정 될 만큼 밥 싸고 맛있고
비건도 있잖아요? 뭐하는 곳이에요?

들다방: 들다방은 급식소예요. 카페이기도 하고요. 노동장애인이 학급식을 위해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장애인을 위한 직무 교육도 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일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성략) 많하지 않기 위해 홈페이지도 만들고, 소꿉물, 전지도 하고... 척력... (성략)
진짜 (49)다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혼지니: 들다방은 "차별 없는 가게"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 가능해요?

들다방: 들다방은 장애/비장애 성인 뿐 아니라 대안학교 청소년, 발달장애 어린이, 장애인 활동지원원
공부하러 온 교육생 등 장애와 비장애인을 포괄해 청소년, 어린이, 동네 어른까지 해가
갈수록 다양한 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혼지니: 자... 그럼 홍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다방: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 목심 부리면 안돼요...

혼지니: 그런 태도로 장사하실 거예요? 저가 대신에 홍보하죠!! 이렇게 싸고, 밥도 먹고, 오이~?
비건도 되고... 오이~? 웃긴 일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카페가 어딴냐고~!! 돈미세로가 번지고...

들다방: 인터뷰 그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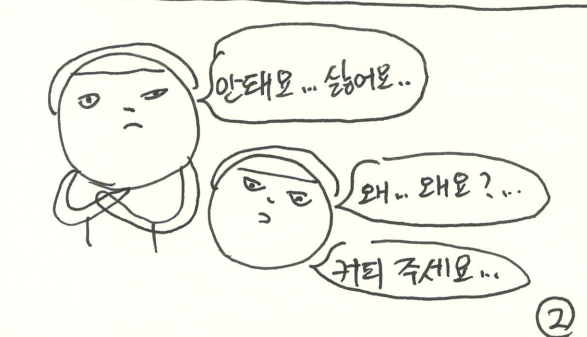
혼지니: 저기... 다방님...? 저기요~!!

들다방: 아니, 저런게 다 있어... 들다방 가서 맛있는 밥 폭식이나 해야지~

1181회로도 당첨번호
②②⑦⑥①④①⑤

오늘의 한 말
난 모든 사람이
싫어

① 애플 ② 아이폰
③ 아이폰 ④ 아이폰
① 똥이 잘나와요!
② 배보다 배! ④ 생목그만.
③ 웃긴 일 있었.



♡광고♡
평등한 밥상
티켓으를 구매
합시다~!!
맛있는 급식
비건 급식
함께 만들어요.
멋진 세상!!
투쟁 투쟁